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오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아우르는 사업 자조금 100년 기틀 다지겠다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2006년 오리산업의 최고 부흥기를 이끌었던 김만섭 회장의 귀환이다. 사람들은 지난해 오리 총생산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지난해말 오리자조금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만섭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오리산업의 부흥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확산을 통해 오리산업의 재도약 의지를 밝힌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부터 오리고기 소비홍보의 새로운 계획을 들여봤다.



오리업계 ‘공동운명체’ 마인드로 합심 오리 생산액 1조5,000억원 달성 박차

오리 생산 ‘1조5,000억 시대’ 기대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은 선임된 직후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오리 생산액 1조5,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실제로 2006년 협회장을 맡으며 오리산업의 부흥기의 초석을 다졌던 그이기에 산업에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오리산업은 최고의 부흥기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AI로 잃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2000년 중반 오리산업의 발전을 꺾은 것은 AI로 인한 소비 감소였습니다. 한때 대유행했던 오리고기 전문 판매점들은 줄지어 문을 닫았고 이것은 오리산업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오리산업의 흥망성쇠는 새로운 소비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훈제오리가 오리고기 가정소비의 핵심이 됐다면 이제 외식산업을 부흥할 새로운 키워드로 중량단위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오리고

기의 중량단위 판매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통 오리고기를 주문할 때는 여전히 마리나 반마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가는 요즘 이러한 판매단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고기의 외식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중량단위 판매가 시급합니다.”

오리자조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리고기 중량판매는 실제로 식약처가 식당에서 표기사항에 삼겹살이나 소고기처럼 오리고기를 중량단위로 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량단위 판매가 자리잡으면 오리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육식당에서 하나의 메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리고기 취급 식당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사업을 펼치는 등 오리산업과 외식산업 모두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육실태조사-축사환경개선 연구용역 진행

과거의 영예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란 없다고 일침을 놓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미래만을 보며 오리산업 종사자가 한 뜻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물론 오리자조금까지 오리산업 종사자의 뜻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를 아울러 자조금이 제대로 오리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은 자조금 100년 기틀을 다지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착실히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오리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오리농가 사육실태조사와 축사환경개선 문제의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오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오리사육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용역사업을 통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리자조금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가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업계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합심해 나간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오리 생산액 1조5,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발하겠습니다.”